

감성적 주체의 네트워킹 전략 :1980년대 한국 청년들의 시적 발화 분석을 중심으로

최혜경

<초 록>

한국에서 1960년대의 청년은 ‘혁명의 주체’였다. 그리고 1970,80년대의 청년은 ‘정치적 저항과 엄숙주의로부터 이탈하는 문화적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준 가장 진취적인 집단’이자 ‘근대적 속성의 담지자’로 불리어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년을 지칭하는 용어는 ‘88만원 세대, 니트족, 알부자족, 3포·5포·7포 세대, 캥거루족, 빨대족, 노답세대, 낙타세대, 민달팽이족’ 등이다. 이것은 빈곤과 고립의 특성을 함의한다. 이들은 생존의 원리로 승자독식의 논리가 강요되는 경제 시대 속에서 속물화·원자화·파편화된 주체이다. 한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내재화하며 불안 지속, 무기력감, 정서적 무감각, 부정 정서의 만성화를 경험하게 된 ‘둔감성의 세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년 세대에 대해 이처럼 자조적 평가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2010년대의 청년들이 개별화된 시각에 기반하고 있을 뿐, 여전히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시각도 있다. 또한 청년층이 문화자본주의와 문화상품화의 흐름 속에서 팬덤 문화를 구성하는 등, 소비주체로서 새로운 위치를 점하려는 시도를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청년 소외 담론을 생성하고 그 논의의 지형을 이용하는 과정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청년 세대를 객체화해 온 관점에 대한 반성이자, 시민 사회의 동력을 청년과 함께 회복하기 위한 공조(共助)적 입장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한국사회 청년 세대에 대한 앞서의 자조적 진단과 사회적 배경에 관한 근원적 비판을 모두 수렴하여, 문제적 양상에 대한 방법론적 대응을 구상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즉, 이 글은 차츰 냉각·탈각·둔감화되어 온 청년의 사회적 감수성 양상을 문제적 배경으로 삼는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가열된 감수성의 시대’, 이를테면 유기체적 신체와 사회적 신체를 동일시하거나 긴밀한 관계로 인식했던 ‘연대적 감성의 시대’를 탐색할 것이다. 한국의 1980년대는 특히 청년의 사회적 감수성을 담은 다량의 발화가 다층적으로 중첩되어 있으면서 당대의 시대 의식이 오늘에 이르는 시대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1980년대 청년 동인지의 문학적 발화를 분석하며 감성적 피동성을 극복하기 위한 감성적 주체의 전략을 간취해보기로 한다.

결국 이 글은 삶의 사회적 맥락을 감지하고 이해하며 공존·공생에 이바지하는 행동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의 목적은 현재 기성세대가 되었거나 노년층에 다다른 이전의 청년들과 오늘날의 새로운 청년들이 공존·공생하고 보완·변영하기 위한 설계를 인문학적 측면에서 구체화하는 데 있다. 1980년대에 나타난 청년의 발화를 분석하고 오늘의 정황과 비교하면서, 오늘날의 세대 감성과 인식에 변용 가능한 감성적 도구와 그것의 사용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당대의 청년들이 예견하거나 견인하고자 했던 미래상과 오늘을 비교하면서, 오늘의 상실된 양상이 혹여 과거로부터 쟁취한 미래는 아닌지 득과 실의 면면을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1980년, 5월 광주, 전쟁의식, 시와 경제, 청년, 문학, 연대, 감성, 노동시, 네트워킹

1. 전쟁의식, 그 불가피한 사회적 감성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세계의 정치적 역학 관계와 자본시장의 권력 구조에 긴요한 토대가 되었던 국제적 정황 속에서 한국사회는 1950년, 전쟁의 자원으로 소비되었다. 한국전쟁은 미·소 냉전대립의 첨예화 끝에 격전으로 현실화된 힘겨루기의 대리 실험이었고, 한반도는 이에 유린된 영토였다. 여느 전쟁이 그러한 것처럼, 한국전쟁 역시 남북의 영토와 기반시설을 초토화하고 막대한 재건비용을 부채화하였다. 또한, 그것은 동족 학살의 참상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와 비극적인 동족 증오, 그리고 공포와 죄책감 등으로 얼룩진 생존자 증후군을 남겼다.

그로부터 70여년이 흐른 지금, 한국사회에는 전쟁을 체험한 세대 이후 두 번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지금 이곳에는 전쟁을 겪었거나 전쟁 시기에 출생한 베이비부머세대, 유신을 앞세운 70년대부터 80년대 후반 냉전체제 종식에 이르기까지 공안체제 아래 살아온 민주화세대, 90년대 초 탈냉전체제 도래 후 신자유주의의 전환적 흐름 속에서 자본과 정보의 초국적 권력 구조에 새로이 적응해야만 했던 밀레니얼세대가 공존한다. 전쟁 이후, 생존에 대해 서로 다른 체험적 인식을 지닌 이들 세대 간에 해결해야 할 교감과 소통의 문제가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의 전쟁은 다분히 변종적(變種的)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총이나 칼과 같은 무력을 앞세워 충돌하는 인간들의 교전(2차 세계 대전 또는 베트남전까지의 전쟁들)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고도로 발달된 무기와 기술을 사용하여 대량의 원거리 살상이 가능해진 현대의 기술전쟁(결프전 이후의 여러 국지분쟁들)과도 다르다. 오늘날의 전쟁은 디지털 부호(code)나 정보(contents) 등 비물질적 형태의 무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이념과 여론, 감성, 제도의 정립과정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가하며 생존의 위기감을 만연시킨다. 전쟁의 종류를 사실상의 전쟁과 관념상의 전쟁으로 나눈다면, 오늘날의 전쟁은 후자의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혼란과 위협에 대한 지속적 투쟁 상태로 나타나곤 한다.¹⁾

이처럼, 신체적 안위나 일상의 영위, 사회적 적응과 경제·정치·문화적 재생산 등 자신의 삶을 존속시키는 요인들에 위협을 가하는 가시적·비가시적 대상, 그것과의 대립 구도, 그리고 생존의 위기감 속에 불가피하게 대응 또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경계태세가 아울러 내재화된 상태를 가리켜 ‘전쟁의식(戰爭-意識)’²⁾이라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청년 세대의 위기감은 이같은 전쟁의식에 준할 만큼이나 매우 고조된 상태로 보인다. 이들의 위기감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 낮은 소득 수준, 사회보험 배제, 소비지출의 불안정성”³⁾ 등의 경제적 측면이나 “세대갈등

1) 오늘날 관념상의 전쟁은 영토와 신체의 경계를 초월하는 비가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리켜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해방 후 국방과 무역에 얽힌 경제 전쟁, 분단 후 민족적 대립을 고착화한 냉전, 안보·경제·자립·성장을 위시한 독재 정국에서의 민주화 투쟁, 인권 유린에 대한 공분(公憤)을 지역 차별 정서로 해소하면서 재구성한 이념적 갈등, 차별적 노동·불평등한 재화 분배 등으로 인해 확대된 사회계층구조의 균열, 계급·젠더·세대·지역 등 각종 대립 구도에 의한 혐오성 이질감, 재해·사고·자살 등으로 인한 생명 상실의 증가와 같은 양상들이 그러하다.

2) 전쟁의식은 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체험적 층위에서 보자면 비교적 일관적이고도 한정적인 양상으로 체험자 분포 속에 나타나겠지만, 생존전략과 결부된 관념적 층위에서 보게 되면 세대·지역·계층·계층별 여건 등이 변수로 작용하며 일정치 않은 범주에서 어지럽게 발현될 것이다. 전쟁을 신체로 직접 경험하지 않은 밀레니얼세대에서도 동족 증오와 이데올로기적 콤플렉스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전쟁의식의 한 예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지역 또는 계급 간의 정치적인 대립이나 세대 또는 젠더 간의 혐오 양상으로 재현되거나 변용되고 있다. 즉, 오늘날의 전쟁의식은 은닉된 채 강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이승윤 외,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제54호,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2017, 495쪽.

을 조장하고 청년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약탈을 허용”⁴⁾하는 정책적·정치적 측면, ‘젠더 갈등, 노동 단위로서 핵가족의 재생산 위기’⁵⁾를 포함한 사회적 측면을 아우르며 삶의 총체적 영역에 산재해 있다.

한국에서 1960년대의 청년은 ‘혁명의 주체’로, 1970,80년대의 청년은 ‘정치적 저항과 엄숙주의로부터 이탈하는 문화적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준 가장 진취적인 집단’이자 ‘근대적 속성의 담지자’로 불리어왔다.⁶⁾ 하지만 오늘날의 청년을 지칭하는 용어는 ‘88만원 세대, 니트족, 알부자족, 3포·5포·7포 세대, 갱거루족, 빨대족, 노답세대, 낙타세대, 민달팽이족’ 등 빈곤과 고립의 특성을 함의한다. 이들은 ‘승자독식의 논리가 생존원리로 강요된 경제 시대의 사회 속에서 속물화·원자화·파편화된 주체’⁷⁾이거나, ‘자기가치감 상실, 삶의 목표에 대한 좌절, 현실 사회에 대한 실망 등을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내재화하고 불안의 지속, 무기력감, 정서적 무감각, 부정 정서의 만성화를 경험’⁸⁾하게 된 둔감성(鈍感性)의 세대로 일컬어진다.

보이지 않는 다종의 위협에 노출된 이 세대의 전쟁의식은 이른바, ‘독존(獨存) 의식’이라는 특성을 띠고 나타난다. 생존이 시대적 화두이자 개인의 의식적 주안점이며 각자도생(各自圖生), 승자독식사회의 성공 기준인 것으로 여기는 생각 말이다. 생존에 관한 공포가 산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 체감되지 않는 살상의 현실에 대해 오늘날의 세대는 일종의 ‘사회적 설맹(雪盲)’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사회적 환경이 시야의 차단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사회적 관계와 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조직과 조작에 유리한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시각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방어적 측면에서 관계의 고립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⁹⁾

하지만, 오늘날의 청년 세대에 대해 자조적 평가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2010년대 청년들은 단지 저항이 아니라 개별화된 시각에 기반하고 있을 뿐, 여전히 자신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표출¹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시각이나, 청년층이 ‘문화자본주의와 문화 상품화의 흐름 속에서 문화 생산자가 아닌 향유 소비자로 전락하였으나 팬덤문화를 구성하는 등 소비주체로서 새로운 위치를 점하려는 시도’¹¹⁾를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또한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청년 소외 담론을 이용하고 그 논의 지형을 은폐하는 타자화 과정’¹²⁾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는 지금까지 청년 세대를 객체화해 온 관점에 대한 반성

4) 정성조, 「‘청년 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23권, 비판사회학회, 2019, 15쪽.

5) 위의 글, 15쪽.

6) 이양숙, 「메트로폴리스의 시공간과 청년의 감정: 21세기 초 도시청년의 감정구조」, 『외국문학연구』 제6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6, 92쪽.

7) 소영현, 「한국사회와 청년들: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6권, 한국근대문학학회, 2012, 390~391쪽.

8) 안혜정 외, 「한국 청년세대의 체제정당화: 의미 불일치 경험과 그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제31권 4호,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17, 265쪽.

9) 그 경험이란 자조와 냉소, 목적 상실과 자포자기, 우울감과 죄책감, 도피와 고립 반응, 편파적 또는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공감대, 상대성 또는 다양성을 표방하며 나타나는 극단적 분절감 같은 감각적 인식을 남긴다. 이것은 집단적 연대가 아닌 개체의 자립적 형태로 생존 위협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낮은 효용성을 나타내며 자꾸 무력화될 때, 자구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성적 현상이기도 할 것이다.

10) 우지혜 외, 「‘청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미메시스 이론을 근간으로 1990년대와 2010년대 청년세대의 저항 및 욕망과 대중음악의 연관성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8, 566쪽.

11) 위의 글, 555쪽.

12) 정성조, 「‘청년 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23호, 비판사회학회, 2019, 16쪽.

적 시각이자, 청년 주체 담론으로 시민 기반 사회의 구심을 회복하기 위한 공조(共助)적 입장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청년 세대에 대한 앞서의 자조적 진단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근원적 비판을 모두 수렴하여, 문제적 양상에 대한 방법론적 대응을 구상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즉, 이 글은 차츰 냉각·탈각(脫覺)·둔감화되어 온 청년의 사회적 감수성 양상을 문제적 배경으로 삼아 삶의 사회적 맥락을 감지하고 이해하며 공존·공생에 이바지하는 행동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라 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 글의 목적은 기성세대 또는 노년층에 다다른 당대 청년들과 오늘날의 새로운 청년들이 공존·공생·보완·번영하기 위한 설계 또는 과제를 인문학적 측면에서 구체화하는 데 있다.

냉각·탈각되는 청년의 사회적 감수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조적으로, ‘가열된 감수성의 시대’, 이를테면 유기체적 신체와 사회적 신체를 긴밀하거나 동일한 관계로 인식했던 ‘연대적(連帶的) 감성의 시대’를 탐색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한국의 1980년대는 당대의 시대의식이 오늘에 이르고 그에 관한 다량의 다층적 발화가 중첩되어 있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지면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감수성이 강렬하게 나타난 비근한 시대인 1980년대의 문학적 발화를 분석하고 감성적 피동성을 극복하기 위한 감성적 주체의 전략을 간취(看取)해보기로 한다.

당대에 나타난 청년의 발화를 분석하고 오늘의 정황과 비교하면서 오늘날 세대 감성과 인식에 적용 또는 변용 가능한 감성적 도구와 사용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당대의 청년들이 예견하거나 견인하고자 했던 미래상과 오늘을 비교하면서, 오늘의 상실된 양상이 혹은 과거로부터 쟁취한 미래는 아닌지 득과 실의 면면을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청년층의 행복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지목되는 “희망감 혹은 미래 무망감(future hopelessness)”¹³⁾이 비로소 새로운 행복의 변수와 또 다른 정체성을 지닌 청년의 시대를 호명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이를테면 행복의 변수로 자율의지나 상상력, 연대적 구현 능력이, 새로운 시대의 화두로 ‘생존’이 아닌 ‘생성’이, 행복의 전략으로 ‘독존’이 아닌 ‘공존’이 인정되는 시대 말이다.

2. 감성의 가열, 신체의 사회적 용해

1980년대 한국 청년들의 사회적 감수성은 광주의 시민학살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식, 또는 공통감각(common sense)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삶의 방식들은 미처 인지적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내재되어 있다가 가치관의 전환적 순간을 맞닥뜨릴 때 비로소 발견되곤 한다. 경제적 실리의 척도를 넘어 공존공생하기 위한 환경 보호의 규약이나,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상황에서 정쟁(政爭)에 우선하는 생명의 가치 등이 그러하다. 80년 광주는 당대 청년들로 하여금 민중의 인권과 자주(自主)라는 공통된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진단하게 만든 사회적 환부(患部)였고, 가치관의 혼돈에 신음하는 개인의 신체를 연결시켜 원인과 대책을 함께 궁리하도록 추동했다.

광주민중항쟁은 상식을 비웃는 폭발적 전개과정을 통해 70년대 운동의 온갖 성과와 한계를 한꺼번에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광주민중항쟁은 무엇보다도 조직되지 않은 민중의 자연발생적이고 고

13) 한승헌 외,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과 행복: 불확실성과 통제권한 부재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정책』 제24권 2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91쪽.

립분산적인 봉기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웅변하여 주었다. 광주민중항쟁은 또한 민중의 염원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지없이 파헤쳐 놓았다. 이로써 민중의 각성을 늦추는 일체의 환상과의 결별이 시작되었다. 광주민중항쟁은 또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주체가 누구이며 이 주체의 잠재력을 현실화할 방도가 무엇인지를 재삼 확인하여 주었다.¹⁴⁾

1986년에 한국민중사를 조망한 위의 언술에 나타나듯, 80년 광주는 ‘자연발생적이고 고립분산적인 봉기’의 수준을 넘어 각성되고 결속된 민중적 조직이 필요함을 확인하게 해 준 역사적 변곡점이었다. 그러한 조직적 대응 체계가 없이는 민중 학살이라는 역사적 사변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으며, 피동적 개체로 살아가는 이상 또 언제든 거시 권력 체계의 미시적(微視的) 자원으로 소용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남북 분단 체제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대립 상황은 국가 안보 유지라는 대승적 목적 아래, 복잡다기한 정치적 발화와 사회적 행동 양상을 제약할 수 있는 편의적 권력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이 같은 자각 아래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 즉 ‘무명(無名)의 시민들’¹⁵⁾에 의해 자주적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당대 청년들의 화두와 소명의식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한국사회에서 미·소 강대국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냉전 체제의 타율성을 지적하며 분단 체제의 극복 방안을 강구하거나 열망하는 양상은 시문학적 범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분단시’, ‘민족시’, ‘항쟁시’, ‘노동시’ 등 당대감성의 키워드가 사용된 시 장르가 마련되고 그것이 무명의 시민들을 대변하는 층위에서 문화적 발화 또는 민중적 결집을 위한 매체적 도구로 사용된 점이 그러하다. 1980년대에 발행된 다음 시집들의 발간사를 일독(一讀)해보면 당대 시창작의 동기나 시 의미망의 주제가 개인의 내밀한 감정 영역보다는 분단 또는 통일 등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감수성의 측면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광주’는 그 2차원적 사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 민족통일과 분단질곡 타파의 민주화운동은 원래부터 동궐의 것이었거니와, 광주는 과거적인 의미에서 70년대 민주화운동의 총체적인 폭발이었으며 현재적 의미에서 ‘참담한 좌절과 거대한 희망’이라는 상호모순적인 구절이 뜻하는 바의 그 운동주체의 이동이고, 미래적 의미에서는 전망의 구체성 확보이었다. (...)

이 정치·경제·문화적 분단의 한반도 남쪽에서 우리 시인들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문학은, 시는, 이질화 정서가 아닌 동질화 정서에, 분단예의 안주가 아닌 해방통일예의 운동예, 독재예의 예속이 아닌 민주화예의 투쟁예, 봉건적 음유가 아닌 대중·민중적 성토예, 예술지상적 사이비 고급취미가 아닌 하나의 민중언론을 완성시키려는 의지에 뿌리를 내리고 또 그것에 정서적 에너지를 주입시키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¹⁶⁾

위 『80년대 민족시인 신작선2』(1985)의 발간사에서는 1985년 한 해에만 두 권의 신작시선

14) 한국민중사연구회, 『한국민중사Ⅱ: 근현대편』, 풀빛, 1986, 375쪽.

15) 사회의 주권이 국민, 시민이라는 집단적 주체의 범주에 놓여야 한다는 생각, 시민사회 하위부문별 체제 정립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1980년 이후 엄혹한 시대의 발화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발견된다. “광주민중항쟁은 단순히 비극적 참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환희의 광장으로 달려 나가는 출발점이었다. (...) 생사의 기로에서 죽음을 결단한 무명(無名)의 시민들이 소망했듯이, 광주는 한반도의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 1983년을 전후하여 권토중래하기 시작한 여러 부분운동들은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확고한 과학적 인식 아래 대중 속에 뿌리박은 운동의 건설, 이것은 모든 부분운동의 좌우명이 되었다. 광주의 5월은 민족운동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힘점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위의 책, 376쪽.

16) 김정환 편, 『신작시선집을 내면서』, 『80년대 민족시인 신작선2: 밤꽃피는 유월에』, 지양사, 1985, 8~9쪽.

집을 엮어 내며 당대 신작시들을 하나의 관념 아래 모으고 유통하는 데 적극성을 발휘한 문학 활동의 동기가 나타나 있다. 실상, '해방통일 운동, 민주화 투쟁, 대중·민중적 성토, 민중언론 완성'과 같은 사회적 책무감이 발행의 동기로 이어진 것이다. 이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점은, 1980년대 사회를 의식하는 당대의 양상이 개인과 사회의 층위를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당대에는 개인과 사회의 운명이 직결되어 있어 개인의 사회적 실천이 곧 개인의 복지로 환원(還元)되는 구조로 사회를 인식하고 있거나 혹은 그러한 체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강렬한 저항의식이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 양심을 주제적 역량에서 회복하여야 할 문학은 분단의 극복과 반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양극의 대결현상에서 민족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현실적 역사적 비극의 극복으로서의 참된 민중의식에 입각한 거대한 민족문학으로 전환할 시기인 것이다. (...) <언어가 민족의 꽃이며 그 민족의 공동체적 상황을 역사 감각으로 감수(感受)받은 언어가 시>라고 할 때 오늘날처럼 분단상황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부정적 측면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현상의 폐해와 민족이질화의 갈등을 변증법적 통합으로 극복해야만 민족시의 본질적 생명력은 그 유효함을 갖는다 하겠다.¹⁷⁾

이 발간사는 『분단시선집』(1984)의 것으로, 당대 시인 46명의 시 254편을 엮어 낸 문학 활동의 동기 역시 분단 상황 극복이라는 사회적 소명 의식에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발간의 동기는 시를 매개로 한 역사적 증언과 범(凡)계급적 소통이 '민족이질화의 갈등을 변증법적 통합으로 극복'할 하나의 방편(方便)이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시선집은 '(민족)시의 본질적 생명력이 그 유효함을 갖는 순간'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문학인 것이다. 그 실천은 이를테면 80년 광주를 주목한 전(全)민족적 시선과 공론·공감의 양상을 곧 민중기반 사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로 환원시키는 과정이며, 이때의 시는 그러한 시스템 작동의 동력으로 소용되는 일종의 도구적 자원인 것이다.

50년대는 직접 전쟁에 참가했거나 그 후유증을 깊이 앓는 상처받은 세대의 비참한 증언이라는 입장에서 반공시적(反共詩的) 고발이나 비평이 두드러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50년대의 분단시는 (...) 6·25의 비극성과 그 후유증을 겪는 세대들의 체험의 정서적 형상화에 기준을 두었다.¹⁸⁾

<분단(分斷)>의 비극에 대한 민족적 자각이 사회전반, 정치나 학문 문학 제분야에 크게 확산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학생과 민중의 민주적 열망이 일치되어 일어난 1960년 4월 19일의 4·19 의거(義舉)가 큰 계기가 되었다.¹⁹⁾

분단은 안보제일주의의 배경이 되고 반공법은 여전히 상존하고 80년대 와서는 남북대결의 감정상태는 최악의 경우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분단>은 모든 불행의 근본 요인임을 직감케 되며, 단순한 남북의 대립 갈등이 아니라 4강으로 압축된 미·소·중·일과의 복잡한 함수관계를 지닌 국제적 음모임이 드러난다.²⁰⁾

『분단시선집』(1984)의 발행 동기는 편자인 문병란과 송수권의 해설에 의해 위와 같이 구체화된다. 곧, 전쟁을 겪은 50년대 한국사회의 비극 체험이 오히려 그 비극성을 고착화하는 냉소적 대립으로 전환된 분단 형국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형국이 정치·경제 층위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이 한국사회의 영토 밖에 있음을 문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분단의 형국이 전쟁

17) 문병란·송수권 편, 「분단시선집을 내면서」, 『분단시선집』, 남풍, 1984, 3~4쪽.

18) 위의 책, 415쪽.

19) 위의 책, 424쪽.

20) 위의 책, 433쪽.

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며, 사회문화적 부가 가치 등 장기 지속의 근거를 발생시키기보다 오히려 삶의 불행을 야기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고, 그러한 분단 형국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낸다.²¹⁾

대립적 경계와 연대적 협치는 둘 다 이질적으로 분리된 것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그 정치적 이질성이 자율적 분리 과정에서 행사될 수 있는 선택과 자유의지가 누락된 채 타율적 분리에 의해 실현될 때에는 연대적 협치보다 대립적 경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80년대에 집중되는 분단 형국에 대한 조망과 저항은 이렇듯 피동적으로 구성된 현실의 비효율성과 부당성의 순환구조를 자각한 데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당성을 순환시키는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의식은 일상과 문학, 그리고 개인과 사회를 의식적으로 연결시키는 실천 활동으로 ‘노동시’ 창작을 도출해낸다. 1981년과 1983년에 각각 발행된 동인지 『시와 경제』(1,2집)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와 경제』 동인들은 이 땅에 대한 책임, 오늘의 '80년대 현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느낀다. 이 시대의 가난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누구나가 벗어나야 할 공통의 질곡이다. 『시와 경제』 동인들은 우리의 가난이 민족사의 전개 과정에서 빚어낸 분단시대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됨에 합의한다. 지난 시대의 경험에서 얻은 소득이라면 이 분단의 현실을 뛰어넘어야만이 우리는 보편적인 세계사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의 확인이었다. 분단의 언어에 근본적 회의를 제기하는 일은 때로는 분단시대에서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여져 왔던 세계관, 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의 개연성까지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장애가 예상된다. (...) 분단시대가 만들어낸 기존 언어의 모든 개념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제부터의 모든 언어는 새로운 개념으로 출발하여야 한다.²²⁾

『시와 경제』(1981) 발간사 역시 분단 현실이 당대의 극복 과제임을 표명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는 한국사회를 특수한 것으로 구조화해 온 민족적, 영토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양상이 80년대 가난의 현실을 만들어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가난은 땅 위에 살아가는 누구나가 벗어나야 할 공통의 질곡’이라는 점을 들어, 분단 지속의 정치적 안보 체제가 지닌 모순적이고도 회의적인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를 매개로 한 통찰과 소통의 과정이 이러한 현실을 회의하거나 성찰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적 실험을 통해, 언어에 담긴 분단 정국의 세계관과 가치관들을 검토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이 1980년대 한국 문단의 활동 동기를 살펴보았을 때, ‘분단 현실 극복’과 ‘민주화 쟁취’라는 시대적 화두가 밀접한 연관성 아래 표명(表明)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 ‘집단적 연대’와 ‘문학예술의 사회과학적 도구화’가 강조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1980년대 시문학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주체와 문학 텍스트가 개인의 순간적인 정서와 내밀한 의식을 반영하는 미학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통찰과 비판적 감성을 제공·주조·반영하는 실험적 도구로 사용·변용되는 양상이 그러하다. 시 텍스트를 비롯하여 판화,

21) 이 시선집에서는 분단 형국을 일종의 망령에 사로잡힌 상태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분단귀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민족의 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한 분단극복의 의지는 주체적 민족 세력의 형성을 통한 민족통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함이 역사의 엄정한 소명으로 자리해 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을 끊임없이 가위놀리고 있는 <분단귀신의 뿌리는 저멀리 <미 극동정책>의 소산인 <한일합방>으로부터 시작된 식민통치하의 암흑상황까지 소급 연결되기 때문이다.(...)”(위의 책, 2쪽); “4·19의거로 술한 목숨까지 빼앗기며 얻었던 민주주의, 그러나 1년도 못지키고 다시 그 자유가 군부로, 그 군부에 의해서 유신으로 짓밟히고 감방에 갇히는 역사적 반동이 되풀이 되고 민주주의 꿈이 무산되었을 때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의 장본인이 분단이란 외세와 결탁된 비민족적 이데올로기란 귀신임을 깨달은 시인의 절규(...)”(위의 책, 425~426쪽).

22) 홍일선 외, 『시와 경제』1, 육문사, 1981, 4~5쪽.

벽화, (탈)춤, 노래, 연극 등 다양한 형식의 문학예술이 ‘식민치하-유신치하-군정치하’를 잇는 당대 사회구조를 비판하면서 변화를 위한 동력 자원처럼 도구화되어 사용된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층위를 동일시하게 된 당시대적 관점 때문일 것이다.

즉, 당대에는 사회적 감수성의 대중화가 생존과 대항의 유효한 전략임을 일상의 체험적 범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난과 국가폭력에 의한 억압, 선택과 자유의지의 거세를 당사자로 체험하거나 혹은 목격하고 청취하게 되면서 사회적 감성이 연쇄적으로 가열되었고, 개인의 감수성이 사회적 범주 속에 용해되는 양상이 대중화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변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중, 민족, 시민, 대중, 국민’ 등 집단적 연대를 지향하는 사회에는 개인을 일종의 장치처럼 인식하여 기능에 따라 위계화하거나 지나치게 결속된 연대의 피로감을 양산할 우려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 가령, 사회변화의 필요성이 신체적 경험을 통해 당위적으로 인식되거나 기념적 제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재화되지 않을 때, 밀착된 연대의 감성은 재귀적 부정과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며 현실로부터 밀려나게 될 것이다.

1980년대로부터 40여년의 시간적 거리를 가진 오늘날이 바로 그러하다. 긴밀하게 결합(結着)되었던 연대의 감성은 상상 속에 추체험(追體驗)되거나 그 효용성이 반문(反問)되곤 한다. 즉, 오늘날의 사회적 감성은 분절 또는 분리된 개인의 범주 안에 은닉되어 비상시적으로 발현되는 낯설고도 다소 냉각된 의식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1980년대에 창작되고 공유된 당대 청년 문인들의 시적(詩的) 발화(發話) 분석을 시도해 본다. 이는 문학과 일상, 개인과 사회, 심미성과 실용성을 한 측면에 놓고 바라보는 관점의 유효성이 당시 어떠한 지점에서 동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즉, 감성의 연쇄와 연대라는 목적 수행을 위한 사회적 도구가 당대 시 사용의 형식이라 할 때, 그것의 기능적 효용성을 검증하고 동의와 실천을 지속시킨 내용적 의의와 방법적 특성에 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3. 시적 발화, 감성의 연쇄와 연대

1981년과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된 동인지 『시와 경제』는 80년대 한국사회를 살아간 청년들의 사회적 감수성과 시대적 문제의식에 대한 응답 양상을 관찰하는 데 유의미한 텍스트이다. 『시와 경제』 동인지 구성의 의도는 1집의 발간사인 ‘김도연, 「언어 질서의 변혁을 바라며」’를 통해 나타나 있다. 이들은 현실의 경직된 폐쇄성이 기존 세계관 구축에 이바지하는 언어 질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진단한다. “오늘날의 한국어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계층 간의 언어 단절로 겹겹이 찢기어져 있”다는 것, “한국어의 혼란을 조장하는 부류들이 정보 전달 수단인 상당 부분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 “일상의 삶에서 멀어진 시인들이 고답적인 태도로 객기와 호사 취미에서 언어 놀이를 일삼고 있”다는 것, “자기 부정의 정신이 결핍된 시인의 허위의식”이 “시를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게 하”고 있으며 “선민의식에 젖”어 “시의 귀족화”를 도출하고 있다는 것 등이 이들이 지적한 언어 질서의 문제이다.²³⁾

즉, 1집의 동인들은 당대의 현실을 ‘닫힌 세계’로 규정하며, ‘부정의 언어를 토해내는 수많은 이단자’²⁴⁾들을 호명할 지면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있다. 동인은 ‘홍일선, 정규화, 김도연, 황지우, 박승욱, 나종영, 김정환, 김사인’ 여덟 명으로, 당시 이들은 1949년부터 1956년 사이에

23) 이 문단의 인용 부분은 ‘위의 책, 1~3쪽.’ 참조.

24) 위의 책, 4쪽.

출생한 2,30대 청년들이었다. 또한 그들의 출생지는 각각 '경기, 경남, 전남, 충남, 광주, 서울, 충북'으로, 상이한 지역성을 한 데 아우르고 있었다. 이 중, 김도연(국문학), 황지우(미학), 박승옥(불문학), 김정환(영문학), 김사인(국문학)은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인문계열로 수학한 지식인으로서 공통점이 있으며, 홍일선은 '『창작과 비평』 여름호(1980)'로, 정규화와 나종영은 '13인 신작시집 『우리들의 그리움은』(1981)'으로 등단한 문인으로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문학과 언어를 통해 지역과 신체를 교차하며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당대 현실에 대한 앞서의 문제의식과 이를 타개해갈 방법적 구상으로서 언어 변혁이었던 것이다.

『시와 경제』 동인들은 무엇보다 시의 귀족화를 단호히 반대한다. (...) 『시와 경제』 동인들은 정직성, 치열성, 성실성을 그의 뼈대로 한 삶의 시에 주력할 것이다. 시와 일상 삶의과의 거리를 없애자는 것은 『시와 경제』 동인들이 당면한 제일의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과 밀착된 언어가 무엇인지 거듭 되묻는 자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²⁵⁾

위 언술에 드러나듯 이들이 설정한 언어 변혁의 방향성(①~②)은 우선, ①일상의 삶, 즉 '현실과 밀착된 언어'를 회복하는 것에 놓인다. 이것은 선민주의나 허위의식에서 비롯되어 귀족화된 시가 한국사회의 언어를 계층별로 겹겹이 분절하고, 상호 불통의 감성을 만들어 모순적 사회구조를 고착시킨다는 진단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상을 반영하고 삶 속 적나라한 감성을 공유하는 시의 대중화 과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언어가 대중의 것으로 환원되며 사회에 생기가 돌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세우고 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방향성은, 이들이 ②"여러 갈래 예술 작업과의 유기적 협력"²⁶⁾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들은 "이제까지의 동인지 활동에서 보였던 제한된 공간 개념은 집착하지 않"으며 "문화 운동에 기본적인 관심을 갖고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려는 의욕 있는 동료들에게라면 『시와 경제』 지면은 아낌없이 할애될 것"²⁷⁾이라고 공언한다.

『시와 경제』 1집에서 이러한 의식적 방향성이 실현되는 바는 8명 동인의 48편 시를 통해 다음 몇 가지 특성(㉗~㉙)을 도출하며 구체화된다. 하나는 ㉗일상적 소재의 차용(借用)이다. 이들 시에서는 '영등포, 청량리, 난지도, 지심도, 흥은동'과 같은 구체적인 지명이나 '머슴이었던 아버지, 시집가는 처제, 객사한 친구, 생닭을 손질하는 아내,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는 집에 사는 신혼부부, 창제인쇄소 주조실에 있는 김씨 할아버지'와 같이 일상과 삶을 공유하는 생활 속 관계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시 속에서 일상의 소재는 미학적 함의(含意)를 지닌 분석 대상 이라기보다 독자가 미처 보거나 듣지 못한 일상의 장면과 심적(心的) 반향(反響)을 추체험할 수 있는 상품처럼 최소한의 가공만을 거친다. 일상의 장면과 일상의 화법(話法)이 담긴 시의 화자가 독자의 시선을 범(凡)계급적으로 확보하며 시적 정조(情操)의 전달 과정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1)

25) 위의 책, 2~3쪽.

26) 위의 책, 5쪽.

27) 위의 책, 5쪽. 이들은 같은 지면에서 "앞으로 시 창작 뿐 아니라 소설, 희곡, 평론, 수기, 르뽀, 논문 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로 필진을 넓혀가면서 종합 동인지로 확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위의 책, 6쪽.) 실제로 1983년에 발간한 2집에서는 다양한 실험적 시들과 「생활연극 체험기」(논문), 「대중가요, 그 방향성의 모색」(좌담 녹취록)을 포함하는 등 갈래별 협력과 범주의 확장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침부터 아내는 아이들을
손바닥으로 때린다
바나나 키크인 B29L가
단돈 2백원 땀에
아이들은 빨간 목젖으로
운다 그놈의 텔레비전 때문만은 아니다
버릇을 고쳐준다고는 하지만
아내는, 지금, 나의 무언가 過信의 무능에
손질하는 것이렸다
낮에도 남자가 집에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서, 이 혐의에서
검침원과 외판원에게 문열어
줄 때마다 나는 죽는다(후략)

-황지우, 「아내의 수공업」²⁸⁾ 일부

(2)
시로서 시작하라 너의 아침을
만원버스 속에서도
새벽의 지하철 계단
아직 자고 있는 어린 별똥 하나
때묻은 옷 앞에서도
후지은행 앞에서도
야간작업을 끝낸 부스스한 철책 대문
돈 몇푼의 코피 앞에서도
사랑으로 시작하라 너의 아침을
어지러운 현수막이 붙어 있는 회사 정문 앞에서도
술꾼이 토한 오물 앞에서도
용산캠프의 낮선 간판 앞에서도
침묵으로 시작하라 너의 아침을

-박승옥, 「아침」²⁹⁾ 전문

이를테면 위와 같은 시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1)에서, 시를 쓰거나 직업을 잃었거나 일당이 적거나, 독자가 경험한 어느 경우로든 정조 전달은 가능하다. 가족의 일상적 즐거움을 보장하지 못하고 노동의 가치도 증명하지 못하는 가장은 가난한 현실의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는다. '동네 꼬마놈들'에게 '피아노 렛슨'을 하는 아내에게도, 2백 원짜리 과자를 얻지 못해 떼를 쓰고 텔레비전이나 보다 결국 엄마에게 혼나고 마는 아이들에게도, '낮에 남자가 집에 있다는 사실'에 보이지 않는 의문을 풍기는 검침원과 외판원에게도, 죽거나 '유배간다'는 심정으로 뒷산 기슭에 오르는 나에게도, 독자의 정조 이입은 가능하다. 낮익거나 공감 가능한 일상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28) 위의 책, 52쪽.

29) 위의 책, 63쪽.

(2)에서 ‘만원버스’와 ‘새벽의 지하철 계단’을 거쳐 ‘때 묻은 옷’으로 갈아입는 출근길은 ‘돈 몇 푼’ 받는 ‘야간작업’을 끝내고 커피와 함께 철책 대문을 열고 나오는 퇴근길과 교차한다. 두 시선은, ‘술꾼이 토한 오물’처럼 더럽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 회사 정문’처럼 어지럽거나 ‘용산캠프 간판’처럼 낡설더라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삶의 의지에서 상호 연결된다. (2)의 시적 화자는 ‘가난하므로 추하거나 나약한 노동자’로 읽히지 않는다. 그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 즉 ‘침묵’하는 의연함 속에 ‘시’와 ‘사랑’을 지키며 매일의 고통을 감내하는 의지적 노동자로 비친다. 자조와 포기를 강요하는 현실과 대비적으로 화자의 발화에 드러난 내면의 의식은 매우 강인하고, 그리하여 인간으로서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가를 제시해낸다.

이처럼, 이 동인지의 시적 실천에서는 일상과 밀착된 시의 구현, 즉 시적 소재와 시적 화법을 구체적인 일상에서 취하여 시적 정조에 대한 독자의 시선을 속도감 있고도 포괄적으로 획득하는 시도가 나타나 있다. ‘달린 세계 부정’이라는 의식적 방향성이 이 동인지에서 실현되는 바의 또 다른 특성은 시적 화자의 발화에 의해 이행되는 ㉔신체적 감각의 활성화이다. 여덟 명의 동인은 각기 개성적인 시적 화자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 화자들은 공통적으로 관념의 층위가 아닌 신체적 감각의 층위에서 독자의 삶을 대리하여 발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동인지의 시 속에는 관념적으로 추론하거나 기호 해독을 통해 시적 의미망을 재구성하는 과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이들 시를 통해 삶을 재현을 경험하고, 공감의 결과를 삶의 추동력으로 환원하며, 대리 발화된 삶의 응어리에 회한을 실어 내보낼 수 있게 된다.

(1)
기쁨은 기쁨이고
시원함은 지긋지긋한 시원함이고
병은 병이고
냄새는 고린내 극치의 냄새인데
이들은 분명 따로따로 엄연하게 갈라서야 하는 것인데
2년된 내 결혼구두 속에서
사랑, 눈물, 피비림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울려
이 근질근질한 백주의 대낮에
나를 비틀거리게 하는 이 무좀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략)
나는 아무래도 내 무좀난 발가락을 몽땅 찢라낼까보다

-김정환, 「내 무좀」³⁰⁾ 일부

(2)
통금시간에 돌아온 문칸 방 새우젓장수
무엇이 역울해서 그는 술에 취해 우는 것이냐
빛에 물려 도망나오던 몹쓸 고향
땀이 흥건히 뻗 밤길 달랭이 무우 잎새에서
늙은 애비 한숨소리 들린다던 말더듬이 사내여
혈값에 서울치들에게 팔려온 저 푸성귀처럼
우리들도 이 영등포 시장에서 아무렇게 짓밟혀서

30) 위의 책, 88~89쪽.

단돈 백원 한낱이라도 깎자던 사람들
안타까운 흥정만이 잠든 시장 사거리(후략)

-홍일선, 『영등포의 밤』³¹⁾ 일부

(1)'의 화자가 백주 대낮에 술 한 잔 걸치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는 이유는 지긋지긋한 무좀 때문이다. 화자는 결혼하면서야 장만했던 구두를 2년 넘게 신고 있으면서, 그 오래된 구두 속에 악화되는 무좀을 치료할 수도 고린내 나는 현실과 결별할 수도 없이 눈물과 피비림 속에 어울려 살아야 하는 오늘에 염증을 느끼는 자다. “발가락을 몽땅 짤라낼까부다”라며 거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은 삶의 혁신을 위한 결의의 표명이거나 기쁨이라곤 없는 현실에 대한 염세적 자조가 아니다. 그것은 기쁨과 사랑을 잃거나 잃어가며 매일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무명의 시민’들이 잠시 멈출 수 있는 일말의 휴지기이다. 시선을 자신의 신체와 감성에 돌리고 묵은 체증을 표출할 수 있는 발화의 기회인 것이다.

(2)'에서 ‘빛에 물려 도망나온’ 말더듬이 사내는 ‘푸성귀처럼 아무렇게 짓밟혀서’ 그와 비슷한 안타까움을 가슴에 지니고 있을 영등포 시장 사람들과, ‘단돈 백원 한낱이라도 깎자’고 흥정하는 결국 비슷한 사람들의 사연을 연쇄적으로 환기시킨다. 독자는 영등포 시장에서 몇 푼에 흥정하던 사람들 중 하나가 되거나, 파장 후 진종일 혼자 보채다 잠든 아이에게 돌아가는 상인이 되거나, 무 농사로는 한숨밖에 얻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 온 새우젓 장수가 되어 함께 ‘영등포의 밤’을 보낸다. 혹은 이 시의 말미에 건네는 말처럼 “울지마라 새우젓장수여/오늘 밤엔 고향가는 꿈이나 꾸자”며 “밤비에 더 싱싱해져” 있을 “새벽장”을 함께 기다릴 것이다.

위 (1)'과 (2)'의 화자는 독자의 신체적 감각을 통해 수용하거나 환기할 수 있는 층위의 정보를 바로 그 신체적 감각의 언어로써 발신한다. 그리고 독자는 체화된 경험적 언어를 통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아우르는 화자의 의식 세계와 접촉한다. 화자가 발신하는 메시지는 그 시적 세계 속에서 독자의 현실 속 경험과 감정을 반추하며 이웃처럼 교감하고 독자의 의식에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텍스트가 바로 현실의 이미지와 스토리를 응축한 일상의 단면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가 감성을 연쇄적으로 발생시키고 간 개체적 연결을 수행하는 일종의 도구로 사용되는 지점이다.

이처럼 『시와 경제』에서는 문학과 사회의 범주를 접목하여 두 범주를 상호 순환적으로 변용해가는 실험적 시도가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학 내 범주를 구분해 온 장르의 경계를 흔드는 시도도 발견된다. 『시와 경제』 1집 발행으로 제기된 언어 변혁의 문제의식은 2년 후 발행된 2집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에서 소기의 성과를 수렴하며 참여의 폭과 실천의 강도를 더하는 것으로 심화된다. 『시와 경제』 2집에서는 ‘집단 종합예술을 지향하는 여러 갈래의 작업이 어우러진 문화운동’³²⁾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문학적 실험과 실천의 양상이 지면에 드러난다.

예를 들면, 장 또는 절을 포함하는 챕터(chapter)형 장시(홍일선, 「젊은 소작농 김씨의 꿈」(1집), 「어허 두옹둥 둥둥 북소리야」(2집)), 행과 연을 대신한 연표형 구조의 시(황지우, 「활엽수림에서」(2집), 벽보나 방송자료 등 사실적 자료를 활용한 르포르타주 형식의 시(황지우, 「벽」, 「徐伐, 셔벌, 셔벌, 서울, SEOUL」(2집)), 삶의 현장 보고와 자기 고백을 담은 생활시(박노

31) 위의 책, 24~25쪽.

32) 정규화 외, 『시와 경제』2: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 육문사, 1983, 2쪽.

해, 「시대의 꿈」, 「얼마짜리지」(2집))와 현장논문 생활연극 체험기(박인배(2집))가 그러하다. 이것은 의미를 구성하는 텍스트 구조를 낫선 것으로 변형하거나 중첩된 장르의 성격을 띠도록 접목시켜 기존의 문학적 화법에 도전하는 양상들이다. 또한 이 시도들은 삶 자체를 반추하여 낮익은 일상을 공유한 독자들을 호명하는 동시에, 독자의 감흥을 유도할 새로운 화법을 개발하는 변혁적 언어 실험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1집에서 한국사회의 계층적 분절과 소통의 혼란성이 정보 전달 수단을 독자지하는 부류에 의해 야기됨을 지적하며 매체의 편향성을 비판했던 문제의식은 2집에 이르러 “재야 차원의 매체 개발 의지”³³⁾를 촉구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정치·경제 권력을 기반으로 둔 기존의 정보 매체가 정상적인 기능, 이를테면 ‘정서를 건강하고 민주적인 것으로 방향지우’³⁴⁾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 대중 기반 국소 매체가 지닐 수 있는 효율성을 간취한 것이다. 이들은 분명 매체 혁신을 위한 국소 매체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집 발간사 「문학에서의 집단성 문제」에서 “여러 경향의 소집단 운동, 무크 형태의 부정기 간행물 증가” 등을 성과로 지적하고 있으며, “기획성과 시의성에서 얼마든지 신축성을 가질 수 있는 측면”과 “문화운동의 담당자가 지식인 중심에서 자각된 민중”으로 확장될 수 있는 측면, “지방 문화 운동의 자생적 성장과 현장 문화 운동의 움직임”을 도출하여 사회문화의 폐쇄성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측면을 들어 이른바, ‘재야 차원의 매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³⁵⁾

『시와 경제』 동인들은 이런 움직임이 배양된 근본적인 배경으로서 이 땅의 뜻있는 문화인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반성되고 있는 개인주의의 극복을 보다 평가하고 싶다. 오염된 언어를 되살리는 데는 한 개인의 양심적인 문화 작업만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자각, 그것이 문화운동에 있어서 여러 방면의 광범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낳게 하고 있다. (...) 운동 개념으로서의 문학이 강조되고 일부 예술 분야에서 공동 창작이 시도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 집단 종합예술을 지향하는 여러 갈래의 작업이 어우러져 빛은 든든한 뿌리를 바탕으로 문화운동은 그 진정한 방향성을 얻게 될 것이다.³⁶⁾

한편, 2집에서는 위와 같이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광범위한 집단적 연대’를 지향하며 창작과 실천³⁷⁾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 즉, 이들의 실천에 나타난 또 다른 특수성으로 ㉞경계를 넘나드는 문화적 포섭을 들 수 있다. 2집에 이르러 동인은 선명한, 홍일선, 정규화, 김도연, 황지우, 박누래, 김정환, 김사인 여덟 명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이에 더해 박노해, 조성우를 새로운 시인으로 소개하였다. 2집에서는 종합예술지 또는 현장예술지로서의 성격을 더욱 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는데, 박인배의 현장 논문 「생활연극³⁸⁾ 체험기」와 당시 활동하던 대중 가수와 국악인을 포함한 좌담 녹취록 「대중가요, 그 방향성의 모색」³⁹⁾을 게재한 점이 그러

33) 위의 책, 2쪽.

34) 위의 책, 190쪽.

35) 이 문단에서 인용한 부분은 ‘위의 책, 1~2쪽.’ 참조.

36) 위의 책, 2쪽.

37) 여기서 ‘실천’은 창작이라는 ‘문학적 생산’을 이르기보다, 노동 현장과 민주화운동의 현실 변혁에 이바지하는 ‘문화적 활동’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38) 박인배는 이 글에서 생활연극에 대해 ‘전문 연극인이 아닌 사람들이 각자의 생활체험을 연극이라는 형식을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생활연극의 예술성은 ‘연극적인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가자들의 자기 확인과 동료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함’을 들어 기존연극과의 변별성을 설명하고 있다. 위의 책, 118~119쪽.

39) 이 좌담 녹취록은 1982년 5월 23일, 가수 이연실과 국악인 최태현을 비롯하여 문승현, 황지우(동

하다. 이처럼, “문화계의 폐쇄성을 설정”⁴⁰⁾한 『시와 경제』 동인들은 사회변혁을 위한 전략으로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표현·소통 매체의 결집과 재구성을 실행하였다.

4. 나가며: 세대 공조, 네트워크 넘어 네트워킹 하기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1980년대에 감성의 연쇄와 연대라는 목적 수행을 위한 사회적 도구로서 시 형식에 담긴 내용적 의미는 ‘분단 극복’과 ‘사회 변혁’을 들어 말할 수 있다. 1980년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문학 활동은, 남북 분단 정국에 담긴 정치적 피동성이 일상의 주체적 구성과 안위 유지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당대의 청년들은 그 부당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언어 질서에 대한 비판의식을 도출하고 언어와 언어활동에 담긴 사고의 변혁 방안을 구상하였다. 곧, 그들은 당시 공안(公安)을 빙자하여 정당화하는 권력 쟁탈의 폭력 속에서 언어예술인 시를 비롯하여 문학예술의 사회문화적 도구화라는 대항 전략을 실천하였다.

문학과 일상(노동)의 영역,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영역을 교차하며 시대의식을 표명하고자 했던 『시와 경제』(1,2집)의 발화 양상을 분석해볼 때, 이들의 언어 변혁 방향성은 ‘일상의 삶, 현실과 밀착된 언어를 회복하는 것’과 ‘여러 갈래 예술 작업과의 유기적 협력을 제안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문학적으로 구현한 양상의 특징은 ‘일상적 소재의 차용’, ‘신체적 감각의 활성화’,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적 포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80년대 한국 사회 청년들의 문학적 실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자 오늘날 역시 적용 가능한 사회 혁신의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실에 유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거나 고착화되어 있는 모순적 구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거나 보완적 지점을 창조하는 것, 일상에서 신체를 통해 감지되는 정서를 근거로 현실의 사회적 요소에 의문을 던지고 이것을 재구성할 동력으로서 또 다른 신체들을 연결하는 것은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개체 간 상호 연결과 연대라는 사회적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80년대에 나타난 문학적 변혁 기술의 유용성에 동의한다. 다만, 오늘날의 사회는 신체 기반 물질적 사회와 의식 기반 비물질적 사회라는 양 측면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연결되거나 감성적 연쇄를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범주가 일상의 영역과 일치되지 않거나 신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의 바깥에 놓일 수 있다. 즉, 개인의 감성적 정황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가 일상의 범주 밖에서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웹(web) 미디어 같은 일시적 마주침의 공간에서 아바타처럼 구현된 상상 속 관계가 순식간에 생성되고 사라지곤 한다.

이에, 상호 연결됨을 위해 호명(呼名)하려는 대상은 80년대 당대처럼 대중적으로 가시화되거나⁴¹⁾ 일상을 기반으로 한 범주와의 일관성을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른바, ‘4

인), 김사인(동인)이 참여한 좌담을 기록한 것이다. 이 좌담에서는 대중가요의 기원부터, 선민주의나 왜색에 길들여진 당시 대중가요 비판, 국악의 현대적 감수성 검토, 한국의 통기타 운동과 청년 문화에 대한 성찰, 삶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노래를 대중 속으로 전할 수 있는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좌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책, 155~205쪽.’ 참조.

40) 위의 책, 1쪽.

41) 이를테면, 『시와 경제』 2집에서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무장한 문화 게릴라의 출몰이 활발해야 할 필요성”(위의 책, 1쪽.)이 그 개념이나 범주 등에 관한 정리 없이도 독자에게 제안되고 있는 점이 그러

차 산업혁명시대'로 불리는 현재에는 다양한 기계, 전자, 정보 기술들을 탈착(脫着)함으로써 신체 기능을 연장하거나 강화한다. 즉, 신체의 확장과 사용 측면의 유동성(mobility)에 주목하고 있는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은닉되고 다양화된 전쟁의식에 대항하여 감성의 연쇄와 연대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문학, 특히 사회변혁을 위한 사회적 도구로서 시 텍스트의 활용법은 1980년대의 그것을 변용한 양태로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 기술과 정보 등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모빌리티의 측면을 신체의 일부로서 감성에 적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는 개체 간의 감성을 연계하면서 상호 접속과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는 문학적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시가 감성의 연쇄와 연대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날의 시에는 감성의 접속과 공유에 초점이 놓일 수 있는 것이다. 1인 미디어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 개체 간 접속의 특성은 속도감과 탈착의 용이성이다. 오늘날은 관계의 구성과 해체에 있어 선택과 자유의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분단 정국의 피동성 탈피를 화두로 삼았던 1980년대와 공통적이지만, 관계 구성의 양상이나 탈착의 계기가 반드시 노동이라는 일상에서 비롯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 변별적이다.

오늘날의 일상은 생존을 위한 조건으로서 노동의 영역과 생존을 전제로 삼는 독립된 삶의 영역으로 나뉜다. 여전히 노동의 영역이 중시되지만 그 영역이 일상 자체와 동일시되지만은 않으며 양가적으로 구별되는 면이 있다. 그것은 삶의 조건으로 노동과 생존과 행복의 역학 관계가 더 이상 일상의 범주 속에서 상호 기여하는 선-순환적 방식을 지니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삶의 조건 간 관계가 차별적 계층구조에 의해 비약적 결과를 나타나거나 그 순환적 구조가 파편화되어 기존의 노동 의식을 비판하는 데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택적 관계 구성과 관계 탈착의 용이성을 중시하는 오늘날, 시문학이 감성적 모빌리티를 확장하는 사회문화적 도구로 사용될 유용성은 여전히 1980년대와 유사한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시가 여전히 속도감 있는 연대의 도구라는 점이다. 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다양화된 전쟁의식 속에 독존하거나 은둔한 수많은 개체들을 시를 통해 호명할 수 있다. 밀레니얼세대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미디어 통합사용 능력과 고학력(학력 인플레이션)현상을 들 수 있는데, 시라는 문학적 플랫폼은 특히 디지털 미디어 공간을 통해 오늘날의 청년세대 간 응답을 확인할 수많은 접속점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시가 지닌 높은 추체험성이다. 오늘날 기술적 모빌리티를 구현하는 물질적 생산물에서 중시되는 점 중 하나는 실재성을 전달하거나 수용하는 인간적 감각의 모방이다. 모바일 통신 매체에서 촉감을 강조하는 '햅틱(haptic) 기술'이 정교화되는 것은 하나의 증명 사례이다. 시문학은 공감각적 정서를 함축하여 시적 화자의 발화를 통해 독자와 공명하기 위해 구조화되어 있으며, 정서적 추체험을 본질적 기능으로 지닌 언어예술이다. 이 같은 점에서 시문학은 감성적 수용과 표현을 위한 플랫폼으로 적절하며, 시적 화자라는 대리자를 통해 탈착 가능한 사회적 연대를 조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작적 자율성을 지닌다. 또한, 호명에 의한 응답의 접속이 자율의지와 감성적 연대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선택적 공조 관계를 유연한 범위에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감수성을 연계할 이러한 도구가 활용된다면, 오늘날 청년 세대의 비효율적 고학력화, 사회적 감성의 은닉, 단절과 고립을 선택하는 자조적이고 폐쇄적인 감성은 한편으로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인정하게 만드는 심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고착된 관계보다 결착이 자유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하다. 그것은 연결과 연대의 대상과 범주, 그 필요성이 당대의 체험적 인식을 통해 이미 설득되어 있는 사회적·정치적 정황 때문일 것이다.

기존 위계적 질서에 대한 도전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또한 이들은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정면 도전보다 조롱과 탈출 등의 우회적 방법을 사용하며 위계적 질서를 근원적으로 해체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오늘의 세대는 조작적 네트워킹에 능하다. 이들은 관계의 네트워킹을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자율성을 추구하고, 개별로 분리된 채 선택적 연결(pairing)을 즐기며, 에너지 투입의 시기와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혹은, 못한 채) 호환성이 높은 노동력을 상비한 이들이다.

개인적 층위의 내밀한 감성이 사회적 감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하고 불가피하게 개별성의 범주 가치에 익숙해져 온 오늘날의 청년 세대들에게는 한편으로 직종의 전문성을 세분화하며 변별성과 경쟁력을 창출해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에너지가 사회로 발산되고 그 동력이 사회 구조 속에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를 대상화하는 관점을 벗어나 세대 간 공조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를테면 ㉠새로운 세대의 선택적 자율성을 지지하고, 이론·경험·수요·공급·피드백을 한 데 접속시킨 전문적 생산트랙을 구성하는 등 ㉡노동의 공간과 관계의 계기를 지원하며, ‘교육-산업-시장’의 일원체계를 청년관리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청년의 공조적 지위를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⁴²⁾

청년 세대의 첨예한 독존의식을 생존의 동력으로 연소시킬 사회문화적 정책을 마련하고 수행해갈 때, 한국 사회가 맞이할 긍정적 효과는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특정 전문직과 3,4차 산업에 편중된 고학력자 취업 양상을 불특정한 전문 직종 창출과 1차 산업군의 질적 발달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이원화된 생산-소비 문화와 기존 직업체계의 헤게모니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불안계급으로 불리는 신 빈곤층의 문제, 지역과 계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인력난의 문제, 질 낮은 1,2차 산업 생산물을 불가피하게 소비해 온 대중 시장의 한계 등을 극복하고 세대 간 교감과 화해, 공조와 합심을 통한 결속 양상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2) 가령, 1차 산업 군을 비롯한 기존의 소외 직종에서 이론·경험·수요·공급·피드백을 한 데 접속시킨 전문적 생산트랙을 지자체 또는 군소 시민 단위로 마련하고, ‘교육-산업-시장’의 일원체계를 청년관리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정보, 서비스, 여가 산업 등 3,4,5차 도시산업 군에서 회귀한 청년 세대들의 경우, 이전 세대 1,2차 산업 종사자들에 비해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웹-기반 문제해결의 탁월성을 드러내곤 한다.

참고 문헌

- 김정환 편, 「신작시선집을 내면서」, 『80년대 민족시인 신작선2: 밤꽃피는 유월에』, 지양사, 1985.
- 문병란·송수권 편, 「분단시선집을 내면서」, 『분단시선집』, 남풍, 1984.
- 소영현, 「한국사회와 청년들: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6권, 한국근대문학회, 2012.
- 안혜정 외, 「한국 청년세대의 체제정당화: 의미 불일치 경험과 그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제31권 4호,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17.
- 우지혜 외, 「‘청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미메시스 이론을 근간으로 1990년대와 2010년대 청년세대의 저항 및 욕망과 대중음악의 연관성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8.
- 이승윤 외,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제54호,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2017.
- 이양숙, 「메트로폴리스의 시공간과 청년의 감정: 21세기 초 도시청년의 감정구조」, 『외국문학연구』 제6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6.
- 정규화 외, 『시와 경제 2집: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 육문사, 1983.
- 정성조, 「‘청년 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23권, 비판사회학회, 2019.
- 한국민중사연구회, 『한국민중사Ⅱ: 근현대편』, 풀빛, 1986.
- 한승헌 외,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과 행복: 불확실성과 통제권한 부재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정책』 제24권 2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 홍일선 외, 『시와 경제 1집』, 육문사, 1981.

<abstract>

**Networking Strategies of Emotional Subjects
-Focusing on Poetic Speech Analysis of Korean Youths in the 1980s**

CHOE, HYE-GYEONG

In Korea, the youth of the 1960s was the "principle of revolution" And the youth of the 1970s and 1980s has been called "the most enterprising group that showed the possibility of cultural resistance breaking away from political resistance and solemnism" and "the embodiment of modern attributes." However, the term referring to today's youth is "the 880,000 won generation, the knit race, the 'Al-bu-za', 3 Po, 5 po and 7 Po generation, the kangaroo tribe, the straw generation, the 'No-Dab' age, the camel generation, and the slug tribe". This is characteristic of poverty and isolation. They are the subjects of snobization, atomization, and fragmentation in an economic era in which the logic of 'winner-occupies all alone' is enforced as a principle of survival. On the other hand, it is a 'generation of insensitivity' that internalizes the disparity between ideal and reality and experiences chronic anxiety, lethargy, emotional insensitivity, and negative emotion.

However, the self-deprecation assessment of today's youth is not all that is being raised. Some admit that young people in the 2010s are based on individualized perspectives, and that they are still actively expressing their perceptions, values and empathy toward themselves and society. There is also a positive assessment that the youth have attempted to gain a new position as a consumer entity, forming a fandom culture amid the trend of cultural capitalism and cultural merchandising. On a more fundamental level, there is also criticism of the process of creating a youth alienation discourse and using the geography of the discussion. This is a reflection of the view that has so far objectified the youth generation and a cooperative stance to restore the momentum of civil society with the youth.

In the article, the focus is on mapping out a methodological response to the problematic aspects, collecting both the previous self-help diagnosis of the youth generation in Korean society today and the fundamental criticism of the social background. In other words, this article takes the social sensitivities of young people who have gradually cooled down and degraded. In contrast, it will explore the "era of heated sensitivities," such as the era of synchronic sensitivities that

have identified or perceived the body of an organism and its social body as close relationships. The 1980s in Korea are a time when the age-consciousness of the era is reaching the present day, especially when a large number of utterances are overlaid with the social sensibility of young people. Therefore, the text will analyze the literary fire of the young people's contemporaries in the 1980s and take into account the emotional subject's strategy to overcome emotional passives.

In the end, this article is a methodological discussion to sense and understand the social context of life and to build an action strategy that contributes to coexistence and symbiosis. Ultimate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pecify in humanistic terms the design for co-existence, symbiosis, complement and prosperity among now older generations, former youths who are now elderly, and new youths today. Analyzing the youth's speech in the 1980s and comparing it with today's context, we expect to find an emotional tool that can be transformed in today's generational sensibilities and its principles of use. Also, by comparing today's future with what the youth of the day wanted to predict or tow, we could reevaluate the face of gain and deceit as to whether the lost aspect is not the future that has been won from the past.

*key-words: May-Gwangju, War consciousness, Poetry and Economy, Youth, Literature, Solidarity, Emotion, Labor-Poem, Networking